"성탄절 수백만 동물 살육… 채식 도입 '절실'"

세네카 동물애호법음회장
12월 4일 인터넷 뉴스 칼럼서

"성탄절 파티 육식 위주"
고기 판매 법적 금지되는
스리랑카 베삭일처럼 해야
불자들에게 '살생말 것' 당부



세네카 위라랏나 동물애호법음회 콜롬보지부 회장이 12월 4일 'Lankaweb' 칼럼을 통해 "성탄절 식사로 수백만마리 동물들이 희생된다. 불교식 육식금지 전통을 도입해야 될 때"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전통적인 성탄절 식사메뉴로 칠면조가 올라온 모습. **사진출처=Huffington Post**

스리랑카 동물 애호 운동가가 가족 · 친구들과 모여 파티를 즐기는 성탄절 문화에 스리랑카의 '불교식 육식금지 전통'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세네카 위라랏나 동물애호법음회 콜롬보지부 회장은 인터넷 뉴스사이트 'Lankaweb' 12월 4일(현지시간)자 칼럼서 "성탄절 같은 이웃종교 축제일엔 수백만 마리 동물이 살육된다. 이는 평화와 자비를 전파하는 종교와 전혀 맞지 않은 이중적 전통"이라며 "불자들은 무분별하게 서양 전통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부터 성탄절에도 베삭일처럼 살생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자들이 성탄절에 관해선 비폭력 정신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성탄절을 기념하고픈 불자라면 모든 생명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불교식 전통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성탄절 기간 동안 수백만 마리의 칠면조 · 오리 · 돼지 · 양 · 닭들이 도축되는데, 이는 불교 전통 베삭 기념일과 정반대 현상이다. 베삭은 부처님의 탄생 · 각성 · 열반을 기념하는 날로, 해당 기간 동안 스리랑카 내 정육점은 고기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베삭 기념일에 스리랑카선 고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은 온 생명체를 향하기 때문에 불자들은 동물을 죽이기는커녕 함께 축제에 참여시켜 배불리 먹입니다."

세네카 회장은 동물보호 전통의 근원으로 불교식 무외시(無畏施 Abhaya-dana, 남을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보시행)를 꼽았다.

"무외시는 위협에 빠진 모든 존재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베삭 기간 동안 도살 직전의 소를 구입해 자유롭게 풀어주는 보시행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탄절 선물로 무외시를 베풀지 않을까요?"

이어 세네카 회장은 동물학대 원인인 공장식 집적농업을 해체시키기 위한 적극적 방법으로 채식을 제시하고 채식주의의 장점을 설명했다. 세네카 회장은 "많은 연구들은 육식이 환경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먼저 육식 위주 식생활은 채식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배 정도 많다"며 "특히 소고기 섭취의 영향은 끔찍한 수준인데, 소 사육은 밀 · 쌀 · 감자 같은 농사를 지을 때보다 160배 많은 토지를 소비하고 11배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심장병 △고혈압 △비만지수 등에서도 육식주의자들이 채식주의자들보다 현격히 높은 발생비율을 보였다며, 가장 큰 폐해로 대장암 발병을 예로 들었다.

또한 성탄절 선물로 주고받는 새끼 강아지 · 고양이가 유기되거나 모피 제작을 위해 토끼 · 여우가 희생되는 경우를 지적하고 "성탄절에 더 가중되는 동물을 향한 전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탄절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불자들에겐 매우 심란한 전통입니다. 올해 성탄절엔 새롭게 채식 전통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전통은 생명을 살립니다. 이보다 더 성스럽고 고결한 전통은 없습니다."

한편 동물애호법음회는 2011년 자신들의 고통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동물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자 스리랑카 불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이후 전 세계에 지부를 결성하고 '인간의 정의 · 자비 · 나눔의 정신은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아래 동물 보호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독특한 발상 불교 슈팅게임 '마니유기 TOKOYO'

아티스트 다카쿠라 카즈키, 불교 마니차 콘셉 게임 제작





'마니유기(摩尼遊戯) TOKOYO' 게임 화면.

일본의 인터넷 언론 '카이유(界遊) 컬쳐 미디어'는 12월 19일자 기사를 통해 평소 불교를 모티브로 많은 작품 활동을 한 아티스트 다카쿠라 카즈키(たかくらかずき) 씨의 게임 제작 소식을 보도했다.

다카쿠라 카즈키 씨가 만든 게임은 불교를 소재로 한 슈팅게임으로, 타이틀명은 '마니유기(摩尼遊戯) TOKOYO'다. 게임은 티베트 불교의 마니차(摩尼車)를 콘셉트로 제작된다. 기사에 따르면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만으로 경전 독송 1억 회분의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게임을 시작할 때 플레이어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 등의 현세의 행위에 관한 10개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런 다음 답변에 따라 얻은 공덕을 생명력으로 변환한 후 게임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게임은 육도 윤회를 본뜬 천도(天道), 인간도(人間道), 축생도(畜生道), 지옥도(地獄道), 아귀도(飢餓道), 수라도(修羅道)의 6개 스테이지로 나뉘어 있고 이를 하나씩 공략한다. 게임에 나오는 적은 구천을 떠도는 영혼으로, 그들을 구제함으로써 공덕을 쌓고 최종적으로 관세음보살에게 예불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다.

다카쿠라 씨는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 스튜디어 도코요(スタジオ常世)라는 회사까지 설립했을 만큼 열정적이라고 한다. 독특한 불교적 발상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 게임은 닌텐도3DS 용으로도 개발 중이다.

주성원 객원기자

호주 초등학생들 불교에 심취 "교법사 양성 필요"

명상 · 달라이라마에 대한 이미지 불교 선호도 급상승 일으켜

호주의 공립학교들이 불교 교법사 충원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브라이언 화이트 뉴사우스웨일즈주(州) 불교위원회장은 "3,000명 이상의 공립학교 학생들이 불교 공부를 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 회장은 "명상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와 그것에 대한 이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6~7세 어린이들도 단 몇 분만 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알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불교 자체는 평화롭고 실용적인 삶의 방식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사우스웨일즈주 불교위원회는 불교 경전을 가르치는 교법사를 70명 양성했지만 최소 60명 이상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화이트 회장은 "우리는 뉴사우스웨일즈주 전역에 교법사를 필요로 하는 학교 명단을 갖고 있으며 수업이 필요한 학교를 위해 항상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수업의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뉴사우스웨일즈주 북부지역에 있는 바이런 베이 공립학교다. 전체학생수의 1/4 이상인 15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불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학교의 불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에밀리 콜링은 수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 학부모 회보 모집공고를 내기도 했다.

콜링 교법사는 "북부지역이 좀 더 개방적인 곳이기 때문에 불교가 급성장 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을 하고 있으며, 불교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줬다"고 말했다.

불교 인구가 급증한 현상에 대해 호주 디킨대학교 안나 할라프오프 종교학과 교수는 2가지 큰 이유로 △달라이 라마의 긍정적인 모습이 호주 국민들에게 호의적으로 비추어진 점 △서양 종교에 대한 서구인들의 불만이 고조된 점을 들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있는 공립학교 학생들 중 3,000명 이상이 불교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ABC**

할라프오프 교수는 "2011년 인구 조사에서 불교는 호주에서 기독교 다음인 2번째로 큰 종교로 성장했다"며 "최근 불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다. 학자들 중에는 스스로 불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명상에 관심이 많고 잠들기 전 달라이라마의 책을 읽는 '나이트스탠드 부디즘'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독교 등 주류 종교는 개인과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더 많은 종교적 접근법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골라서 선택하고 결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호주에는 각 주(州)마다 공립학교 종교 교육 규정이 있다. 빅토리아주는 올해 초 교육과정에서 특별종교과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세실리아 미트라 호주 불교위원회장은 "불교가 모든 공립학교에서 즉시 시행가능하다면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수요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주 1회 30분정도의 종교 수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불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몽골, 中에 백기 "달라이 라마 초청 안 해"

뭉흐어르길 외무장관, 자국매체와 인터뷰서

몽골이 중국에 백기를 들었다. 정부 차원서 "달라이 라마를 다신 못오게 할 것"이라 천명한 것.

12월 21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첸드 뭉흐어르길 몽골 외무장관은 최근 자국 매체들과 인터뷰서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몰래 방문'했다"며 "그 영향과 후과는 종교범위를 넘어섰고, 몽-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몽골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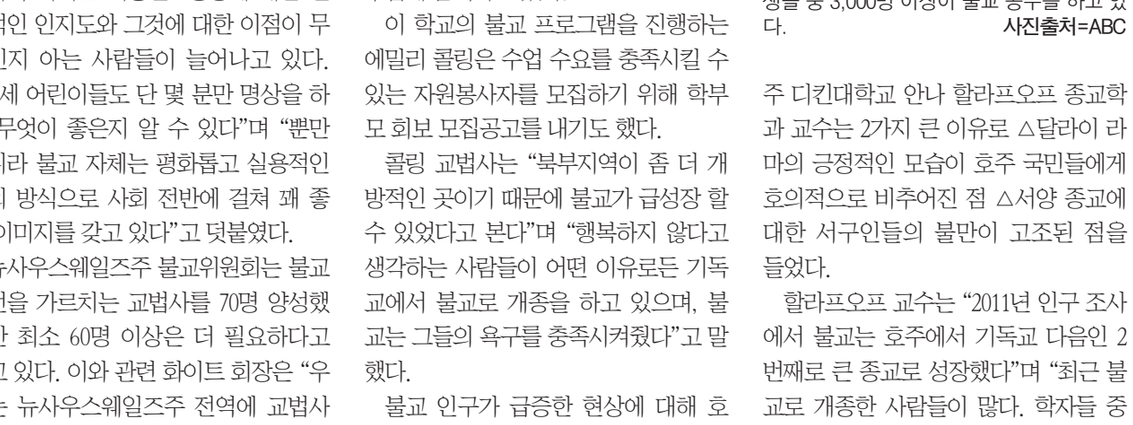
또한 뭉흐어르길 장관은 몽골이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뜻과 함께, 몽골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달라이 라마가 몽골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표명했다.

이러한 몽골 정부의 입장은 지난달 달라이 라마 방문 후 시작된 중국의 강도 높은 제재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중국은 몽골에 금융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간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몽골 남부 톨고이 지역에 접한 중국 네이멍구 세관 당국이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관비를 징수했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11월 18~21일 몽골을 방문, 몽골 최대사원인 간등사 등서 대중 강연을 펼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cm × 세로 300cm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